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안톤솔츠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다. 곳곳에 숨이 멎을 만한 놀라운 곳이 있다. 우아하고 긴 해안가며 수목화를 연상시키는 수많은 산들은 사계절 내내 끝없이 변화하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 매년 사라지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한국의 인구증가는 정체상태지만 도시나 도로는 여전히 개발이 한창이다. 1994년 이후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에서 보내온 나로서는 예전과 비교해서 가는 곳마다 산천의 모습이 현격히 변화했음을 느낄 수 있다. 엄청난 자연이 훼손됐고, 외진 곳도 상업적으로 개발됐다.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개발은 필요한 것이며 경우에 따라 새 길이 들어선 것을 반가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변 산과 들을 관통하며 보기 싫은 흉터처럼 남은 환경이 무시된 채 건설된 새 도로는 본래 한국의 평화로움과 자연스러움을 완전히 파괴하고 말았다.

수 년전까지만 해도 내게는 차가 없었다. 당시엔 오직 내가 갖고 있던 오토바이뿐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 전국을 다니곤 했다. 그래서 한국인들보다 한국의 곳곳을 많이 둘러 본 것 같다. 해남 땅끝 마을부터 북한까지, 흥도와 울릉도에 이르

는 섬들까지 가봤으니 꽤 많은 곳을 본 셈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100권이 넘는 사진과 글을 담은 여행기사를 써오며 바이크 투어를 하며 한 덕분에 작은 국도와 비포장도로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내가 좋아했던 국도에는 눈

모시고 가족여행으로 흥도에 갔었다. 외진 아름다운 돌섬이야말로 단연코 한국의 보물 중의 하나다. 나는 사람들이 흥도의 자연을 보기 위해 그리고 예전엔 알았던 그러나 개발의 물결에 거의 사라져가는 것들을 재발견하려고 가는 줄로 생각했다. 그러나 흥도에 가서 보니 숨막힐 정도로 둘러싸인 그림같이 작고 아담한 항구 한가운데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새로운 여객선 터미널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미 더 이상 세워질 자리가 없이 뻣뻣하게 들어선 가파른 언덕

을 지키려는 그리고 한국에 대한 그저 단순한 낭만적 발상을 하는 어느 과확한 외국인의 생각처럼 비취 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외국인인 나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고속도로 연결이 좋아 아무 데나 빨리 갈 수 있고, 자연 속 어디서도 모험을 찾을 수 있는 편리함이 없더라도 아름다운 자체를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전국에 걸쳐 새로운 캠핑지가 이곳저곳 생겨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지 아니면 단순한 유행처럼 금세 사라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것이 문화로 자리잡기 시작한다면 편리함 정도는 포기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소음으로부터 그리고 바쁘다 못해 쉽게 지치게 만드는 도시 생활에서 자연을 느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미래 한국 자연생활에 대한 희망이라고 여기고 싶다. 만약 그런 것이 아니라면 벨로시티 레이저는 가장 최신의 유년기에 보았던 한국의 자연을 과연 볼 수나 있을까하는 두려움이 든다.

‘천하는 신묘해서, 행하려 하면 그 반대가 있다. 그리하여 만약 행하려 한다면 패하게 되고 불갑고자 역지로 행하면 잃을 것이다.’ -노자 도덕경 중에서-

〈코리아컨설팅 대표〉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특이한 취향

은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그 길을 가로지르며 곳곳에 어마어마한 기둥이 세워진 것을 봤다. 하천과 그 지역 산세에 맞게 건설된 국도를 왜 마다하는 것일까? 왜 나무를 자르듯 산들을 동강내 버리고, 계곡의 정취를 영원히 빼앗는 등의 자연훼손에 그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하는 것일까? 나로서는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다.

가끔 나는 이 나라는 무조건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한 독특한 취향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름답고 성스러운 곳은 차를 쉽게 갈 수 있어야 하고 그곳에는 무조건 잠자리와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올해 초여름 독일에서 오신 어머니를

배기에는 각자의 상업공간들을 알리기 위해 눈이 시릴 정도로 어지러운 간판들이 걸려져 있었다. 과연 그저 큰 돈을 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섬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보존돼왔지만 이 귀한 섬이 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지조차 생각해 보지 않은 정치가 또는 행정가나 개발자들에 의해 쉽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튼 전국에 보물 같은 곳을 찾아 갈 때마다 ‘개발’이라는 괴물에 하나씩 차례대로 삼켜져 똑같은 환경의 도시 클론처럼 내뿜어진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눈물이 날 지경이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 환경

의료 칼럼



신봉석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파괴되고 그 결과 피부에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흰 반점이 나타나는 후천적인 색소성 피부질환이다. 통계학적으로 100명 당 1~2명꼴로 발생하는 비교적 흔한 피부질환으로 출생 직후부터 노년까지 다양하게 발생하나 대개 20세 전후에 빈번하다. 전신 혹은 국소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원형 또는 불규칙한 모양의 탈색반으로 시작되며, 경계는 명확하면서 경계부를 따라 과색소침착을 나타내기도 한다.

백반증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

았지만 유전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등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장애, 외상이나 햇빛에 의한 화상 등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병변은 어느 부위이나 나타날 수 있으나 특히 손, 발, 무릎, 팔꿈치 등의 뼈가 돌출한 부위, 입·코·눈 등의 구멍 주위, 정강이뼈 전정부, 겨드랑이, 손목 등에서 주로 자극을 받기 쉬운 신체부위에서 발생한다. 백반증은 자체로 건강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얼굴, 손 등과 같은 노출 부위에 있을 경우 미용상의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사회활동 기피, 우울증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이 같은 백반증의 특징 때문에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생각돼 처음 발병했을 때부터 치료를 포기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도 많지만 최근에는 자외선 치료, 엑시머 레이저, 수술 요법 등의 다양한 치료법이 연구돼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병의 확산을 막을 뿐 아니라 완치도 가능할 수 있다.

백반증 예방과 병합치료

초기에 발견된 백반증은 기존의 연고, 광선 치료와 같은 단일 치료 이외에도 단기간의 집중 약물 치료와 함께 표적 광치료(광선 치료, 엑시머 레이저)를 병합한 치료가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백반증 병변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1~2년 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치료에 저항성을 보이는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함께 사용해 치료 성공률을 더욱 높일 수 있다.

그 외에 과로를 피하고 평소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자극을 받아 상처가 생기면 병변이 새로 발생하기도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심하게 긁는다거나 외상을 피하는 등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 또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 섭취나 종합 비타민과 같은 보조 영양제를 먹는 것도 백반증의 예방·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조선태병원 피부과는 기존의 전통적인 치료법인 국소제제의 도포나 병변 내 주

사와 함께 약물요법, 광화학요법 및 광선치료 등 뿐만 아니라 백반증 치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되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해 백반증의 병합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조선태병원 피부과에 도입된 2세대 엑시머 레이저인 벨로시티 레이저는 가장 최신의 엑시머 레이저로 백반증 환자에게 자외선에 가까운 빛으로 피부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도록 하는 원리로, 치료 중 통증이 전혀 없고 안전한 통증을 민감한 환자나 소아, 임신부나 수유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광선치료와 달리 레이저 빛은 건강한 피부에 불필요한 자외선 노출을 방지해 정상 피부는 손상시키지 않고 치료도 가능하며, 이전의 엑시머 레이저보다 치료시간이 획기적으로 짧아 넓은 부위의 치료도 단시간 내 시술할 수 있다.

백반증은 자연 치유가 잘 되지 않고 치료 또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거나 그 크기가 증가한다면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태병원 피부과 교수〉

기고



최남식

나주는 한국 배의 명산지이다. 아주 오랜 한 경사가 이어지는 구릉 모양의 지형에 토양과 기후 조건이 배 재배에 적지라 한다. 과수 중에서도 배나무는 가지를 뒤로 버티게 잡아주는 특이성이 있다. 그러한 배나무가 나주 평원에 끝없이 펼쳐진 광경이 사철 보기에도 무던하다. 배꽃은 은은한 흰색으로 온 과수원을 덮어버린다. 버티고 서 있는 가지마다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꽃은 마치 하얀 눈송이라도 있어 놓은 듯 잠시 겨울 풍경을 자아낸다. 이때 좀 인근에서 배꽃 구경 나들이도 시작된다.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이 삼경인데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꾸야 알라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노라.

태풍 '볼라벤'이 남긴 것

시조작가 이조년(李兆年, 고려시대)도 일찍이 이화에 취한 사람이었다. 이화가 관광자원이 될 무렵에 벌과 나비, 그리고 은화한 봄바람이 화분(花粉)의 매개체 역할을 해 준다. 그런데 근래에 벌과 나비가 드물어졌다. 이를 보완 해 주는 건 인력이다. 사람이 붓이나 면봉으로 일일이 꽃을 찍어 주어야 한다.

여기서부터 경영자들의 본격적인 고전은 시작된다. 그게 성공하여 열매가 열게 되면, 가지가 지탱할 수 있는 역량을 고려하고, 씨알의 크기를 예상하여 열매를 속여 주어야 한다. 과수 전체를 돌보아 하니 전후 좌우 상하, 고개 떨어지는 일이다. 배 밭에서 살다 싶이 하는 경영자들의 계속되는 보살핌 속에 하루가 다르게 열매는 커간다. 열매가 적당히 크면 병충해를 예방하고 직사 광선을 피하여 배의 색깔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얀 종이 봉지로 배를 하나하나 곱게 싸 주어야 한다. 가꾸는 사람들의 마음도 봉지 속의 배알처럼 부풀어 살찌고 있을 때이다. 월여 있으면 추석을 계기로 통통하게 살찌고 동글동

글한 명성 있는 '나주 배'로 훌륭한 상품이 되어 국내·외 시장으로 날개를 펴는 판이다. 남태평양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태풍들이 진로를 대개 일본 쪽으로 많이 잡는데 어찌하여 '볼라벤'은 좁은 서해로 들어와 우리나라를 휩쓸고 가게 되었는지, 그게 비극의 단초이다. 초속 40m로 과수를 밟다 흔들려 뒀으니, 온 배 바깥이 이제는 낙과의 흰 봉지로 덮여 버렸다.

태풍이 온다온다 할 때부터 거의 침식을 잊었던 주인을, 졸지에 할 일이 없다. 가끔 봉지 하나 주어서 펴 보고 던져 버린다. 결국엔 봉지 위에 털썩 주저앉는다. 망연자실, 실신하지 않을 게 두렵다. 비단 배뿐 아니라 사과나 복숭아 등 과수에 열린 과실들의 사정은 마찬가지로 일러라. '낙과에 낙심'하는 그 모습, 어이할까, 그 안타까운 거.

한해에 걸쳐 노력과 정성껏 쌓아 올린 공든 탑이 순식간에 무너진 것이다. 천재지변의 재앙이 '복사고을'을 덮쳐 버렸다. 또 있다. 수년 만에 몰아닥친 흑사, 폭염에 폐사한 양계장의 크고 작은 닭들을 비로 쓸어다

가 매장하게 되었다. 그도 한 마리 한 마리에 정성을 다하여 기른 닭들이다. 거기에도 해안과 도서가 많은 전남 지방은 어패류의 양식장이 많다. 그런데 여기엔 녹조가 뒤덮어 양식장에 떠 오를 폐사 한 고기들로 바닷물은 보이지도 않았다.

태풍 '볼라벤'은 물속 깊이 설치해 놓은 양식 시설마저 송두리째 밀쳐 물로 올려다 놔다. 이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재앙이다. 대자연이 인류에게 안겨 주는 가혹한 시련이다. 멀리는 '아이티' 지진의 대참사, 가깝게는 일본 후쿠시마의 '쓰나미'에 걸쳐진 인재,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게 계속되는 재앙들, 천기(天機), 천리(天理)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기밀, 이가 빛어낸 모두는 그저 안타까울 뿐!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어떠한 자연적인 악조건도, 재앙과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힘과 지혜를 다 하여 극복해 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마치 배나무 꼭대기에 매달려 태풍 '볼라벤'을 견디어낸 '배 알'처럼 불굴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제 다시 털고 일어서 등돌고 크고 탐스러운 황금빛의 '나주 배'를 꼭 기대해 본다. 〈전 동신대학장〉

인스턴트에 길들여진 청소년들 과일·채소 섭취 늘려야

우리 청소년들이 피자나 치킨 같은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식품에 입맛이 길들여지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그렇게 식습관이 길들여져다 보니 청소년들이 채소·과일을 멀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거기다가 대부분의 학교급식마저 그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과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용 때문일 걸로 본다.

그동안 우리는 학교급식의 무상이나 유상이나 논란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자녀가 먹는 급식의 질에 대한 고민은 도의시해 왔다. 우리 국민이 밥을 잘 먹지 않고 끼니를 거르면서 성인들마저 서구식 식습관에 길들여져서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이런 거기에 더해 과일과 채소를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들의 식습관에 대해 굳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모든 의사들은 건강하게 살려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한다. 이는 만고 불변의 진리라는 것이다.

이런 식습관이 중요함에도 그걸 지키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 치료비용은 결국 건강보험료 즉 국민세금으로 메워지는 게 문제다. 한 대학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채소와 과일 섭취량을 분석해 보니 6.7%만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채우고 있다고 한다. 그마저도

40%는 김치를 통해서라고 하니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채소와 과일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채소 490g, 과일 300g이라고 한다. 하지만 겨우 권장량의 4분의 1만 먹고 있다는 문제이다. 특히나 가장 고된 영양상태를 유지해야 할 청소년들의 채소와 과일 섭취량이 어른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내일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국가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시설

안전대책 절실한 전남 시골길 교통사고

한적한 전남 시골길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도시 도로보다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데다 노약자들의 이용이 많고 한적해 과속 차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순례보험협회의 '2011년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전남은 3.9명(전국 평균 2.39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3.8명, 충남 3.7명, 전북 3.6명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1.27명, 대구 1.44명, 인천 1.52명, 광주 1.92명 순으로 적었다.

특히 강진은 12.28명으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번째로 높았다.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3.8명, 충남 3.7명, 전북 3.6명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1.27명, 대구 1.44명, 인천 1.52명, 광주 1.92명 순으로 적었다.

수입산 고기에 본드 붙여 국내산이라니

추석을 앞두고 수입산 돼지고기 등 육류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식품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광주·전남지역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 51곳,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61곳, 쇠고기 이력표시를 위반한 10곳 등 모두 12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광산구 P축산은 칠레산 돼지갈비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식용 본드로 붙여 국내산으로 표시해 팔아왔고, 광주 서구 G식육점은 스페인산 돼지갈비를 5kg씩 대마구니에 담아 국내산 추식 선물 세트로 판매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또 광주 광산구의 한 체인점인 C레스토랑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미 육류 국산 돼지갈비를 돼지갈비용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육회로, 미국산 닭고기를 가슴살 샐러드로 각각 조리해 뷔

페식으로 제공하면서 팔아왔다. 먹을거리를 놓고 속이고 속는 것은 씹쓸하다 못해 역물하기까지 한다. 제 값을 주고서도 국내산이 아니라는 믿음이 깨질 때 소비자가 느끼는 배신감은 더할 수밖에 없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자기 이익만 챙기는 후안무치에 분노마저 치민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먹을거리를 가지고 국민을 속이는 짓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와 소비자 모두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 관계 기관은 해당 업소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송방량이 처벌이 재발의 내성을 키운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위반 업소에 대한 공개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소비자들도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생활화하게 되면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다.

無等鼓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5)가 드디어 해냈다.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으로 '팝의 본 고장' 영국 음반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영국 오픈서차트 컴퍼니는 지난 1일 싸이의 히트곡 '강남스타일'이 10월 첫 주 싱글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강남스타일'은 지난주까지 3주간 1위를 차지했던 아일랜드 록밴드 스킵 트의 '홀 오브 페임(Hall of Fame)'을 제쳤다.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브에서 세계적 인기를 모으면서 영국 음반 차트에 진입한 지 6주만의 기록같은 일이다. 싸이의 이번 성과는 영미권은 물론 세계 대중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팝의 본 고장' 영국에서 이뤄

정상 동시 석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싸이의 성공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싸이의 영어 구사능력을 꼽는다. 그리고 기획사의 투자와 철저한 프로듀싱이 밑받침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분석은 약간 다르다. 싸이가 외국 팝가수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이다. 싸이는 한국 가수로서 불고 웃고 즐겼다.

싸이와 '한국스타일'



세계 유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그의 노래 '강남스타일'처럼 그대로 웃고 즐기며 한국의 흥과 멋을 알렸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한국스타일'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한국이어서 좋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 같아서, 영국 같

아서 좋게는 아니라는 얘기도. 외국 친구들은 한국에 오면 포장마차에서 고갈비에 소주 한잔으로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한국스타일'로 즐겁게 흥을 돋우며 사는 것이 곧 세계적인 것임을 싸이가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영국 음반 차트 1위는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이든 패가다. 지난 1963년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사카모토류(일본)의 '스키야기'도 영국 음반 차트에서는 6위에 머물렀다. '강남스타일'은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도 2위까지 올라 영미권 음악 차트

세계 유수의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하나도 주눅들지 않고 그의 노래 '강남스타일'처럼 그대로 웃고 즐기며 한국의 흥과 멋을 알렸다. 그들은 이러한 것을 '한국스타일'이라고 한다. 외국인들은 한국이 한국이어서 좋다고 한다. 한국이 미국 같아서, 영국 같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滄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내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2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49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